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성은모** · 김균희***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중학교 1~2학년 패널 1~2차(2010~2011)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생 2,143 명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개인특성(자아존재감, 자아탄력성)과 환경특성(가정 경제적 소득, 부모, 또래, 학교, 지역사회환경) 중 개인특성만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경특성보다 개인특성이 청소년의 행복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환경특성은 개인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설명력, 총효과 = .65)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특성 요인 또한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행복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환경이 조성되어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청소년, 행복,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개인특성, 환경특성

*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1~2차(2010, 2011)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3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교신저자, gyunhee1125@nypi.re.kr

I. 서론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3년 출범한 정부에서는 4대 국정기조 ‘국민행복’을 선정하여, 사회적, 국가적으로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복지수는 가족해체 가속화, 양극화 심화, 경쟁 심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예컨대, 전 세계 15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6.27점이며 41위에 머물렀다(동아닷컴, 2013.9.11).

특히 극심한 학업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되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수준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으며(서경현, 2012; 한민 외, 2012), 타국가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도 주관적 행복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를테면,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한국 아동·청소년(초4~고3)의 ‘주관적 행복도’는 20여개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박종일, 박찬용, 서효정, 염유식, 2010; 세계일보, 2012.5.4). ‘교육’, ‘물리적 환경’, ‘보건과 안전’ 등의 영역이 상위권 혹은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난 것(박종일 외, 2010)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와 청소년의 행복이 안정적인 특성을 가져(전미경, 장재숙, 2009)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Yang, 2008; 박종일 외, 2010에서 재인용)을 고려한다면,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학문적,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크게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공인숙, 김선영, 2012; 김신영, 백혜정, 2008; 박종일 외, 2010; 하정화, 김정란, 이해주, 2010, 2011; 최혜영, 신혜영, 최미숙, 조성연, 2009)와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권세원, 이해현, 송인한, 2012; 도중수, 2011; 전미경, 장재숙, 2009; 허승연, 2009)로 구분된다. 전자의 연구 중 김신영과 백혜정(2008)의 연구를 제외한 연구들에서는 행복의 개념을 다소 폭넓게 규정하여,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특성뿐만 아니라 물질적 행복, 가족, 교육환경 등 환경특성 등을 행복요인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최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이 유독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행복을 다소 협소한 개념

으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의 행복 결정 요인을 분석한 후자의 연구들(권세원 외, 2012; 도중수, 2011; 전미경, 장재숙, 2009)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개인 및 환경특성을 고려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아동·청소년의 행복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나(송정화, 2011; 전미경, 장재숙, 2009; 허승연, 2009), 개인이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달하는 개체라는 생태학적 관점(Bronfenbrenner, 1979)에서 볼 때 환경의 변화를 통한 개인의 행복 증진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등 다양한 환경요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또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김애경, 2003; 김지영, 이형실, 2010; 이미리, 2005; 이숙영, 2012; 임양미, 2013; 정병삼, 2010)에서 청소년 개인특성을 환경 변인과 청소년의 행복의 주요한 매개변인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특성 및 다양한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각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행복의 개념

행복은 ‘웰빙’,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과 같은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정의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김신영과 백혜정(2008)은 행복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였는데, “행복은 삶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가장 협소한 개념이고,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총합으로 중간 개념, 주관적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감 같은 심리적인 영역 이외에 다른 요인을 포함시킬 수 있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 개발과 관련된 연구(박종일 외, 2010; 최혜영 외, 2009; 하정화 외, 2010, 2011)들에서는 도시 혹은 국가단위에서의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행복’을 ‘삶의 질’의 개념과 동등하게 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UNICEF의 Child Wellbeing Index에 기반하여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KCWI)’를 개발한 박종일 외(2010)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 이외의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관련행위’ 등 행복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을 행복의 구성영역에 포함하였다. 한편 하정화 외(2010, 2011)의 연구에서는 ‘배경’,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 ‘안전 및 보호’, ‘건강증진’, ‘역량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영역에서 주관적 및 객관적 행복지수를 도출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에서는 객관적 행복의 조건과 주관적 행복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물리적 조건에 비해 주관적 행복이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결과(박종일 외, 2010)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만을 다루고자 하며, 외적 조건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복’을 ‘삶의 질’보다는 협소한 개념인 ‘주관적 안녕감’과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주관적 경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체로 긍정적인 척도를 포함해야 하고, 생활전반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져야(Diener, 1984)”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Diener(1984)가 제시한 주관적 안녕감 구성 요인 중에서 개인의 주관적 긍정 정서를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 즉, ‘삶의 즐거움’, ‘삶의 긍정적 태도’, ‘삶의 만족’을 행복 측정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2.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크게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권세원 외, 2012; 김경민, 2010; 송정화, 2011;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전미경, 장재숙, 2009; 최인숙, 2012; 최혜영 외, 2009; Campbell, 1976; Diener & Fujita, 1995)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인특성 변인으로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탄력성(resilience)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환경상황에 긍정적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해가는 사람의 삶의 만족 및 행복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환경특성으로는 가정 및 부모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특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가정 및 부모환경에는 소득수준과 부모양육태도가 포함된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득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Ingehart(1990)가 세계 각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졌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이후에는 소득과의 관련성이 없었다(김윤태, 2009에서 재인용). 이는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이 보장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요인이다.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이느냐가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고혜영, 2012; 곽윤영, 2009; 김경민, 2010),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혜영, 2012).

청소년기는 가정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로,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을 분석한 허승연(2009)의 연구에서도 가정환경 변인보다 또래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연구(고영남, 2008; 곽금주, 1995; 조진만, 강정환, 이병규, 2012)에서 또래관계가 원만하고, 또래에 착이 높은 청소년이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학교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적응과 청소년들이 심리적 행복은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희중, 2007; 윤종대, 정철규, 윤필규, 노미라, 2009).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화시설 구비와 같은 변인이 가정 및 학교환경보다 그 영향력은 미미하나, 청소년의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허승연, 2009)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 또래환경 변인으로 또래애착, 학교환경 변인으로는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사관계), 지역사회환경 변인으로 거주 지역 인식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송정화, 2011; 전미경, 장재숙, 2009; 허승연, 2009, 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에서는 환경특성보다는 개인의 특성이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이를테면, Seligman(2002, 2006)은 행복의 수준은 ‘유전적 요인’, ‘삶의 상황(소득, 건강, 학력, 종교 등)’, ‘개인의 자율성(긍정적 정서)’로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적 요인’, ‘삶의 상황’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이기범, 2009에서 재인용). 또한 Lyubomirsky et al.(2005)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 50%, 외부적 환경 조건이 10%, 그 외에 40%는 행복지기 위한 의도된 노력,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근거하여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비교적 강조되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개인의 성장·발달이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 즉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도 다양한 환경 변인의 영향을 통해 발달한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김애경, 2003; 김지영, 이형실, 2010; 이미리, 2005; 이숙영, 2012; 임양미, 2013; 정병삼, 2010)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한편 권세원 외(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 또래, 교사, 지역사회 관련 환경 변인들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와 앞서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환경 변인이 개인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같은 개인특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이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환경 변인이 개인특성을 통해 미치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행복, 개인특성, 환경특성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생태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은 사회적 존재로서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특성과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청소년 행복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모형의 가설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고, 가설 H1에서 H4까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모형에 대한 기본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H1. 청소년의 개인특성은 청소년 행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청소년의 환경특성은 청소년 행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청소년의 환경특성은 청소년의 개인특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청소년의 환경특성은 청소년 행복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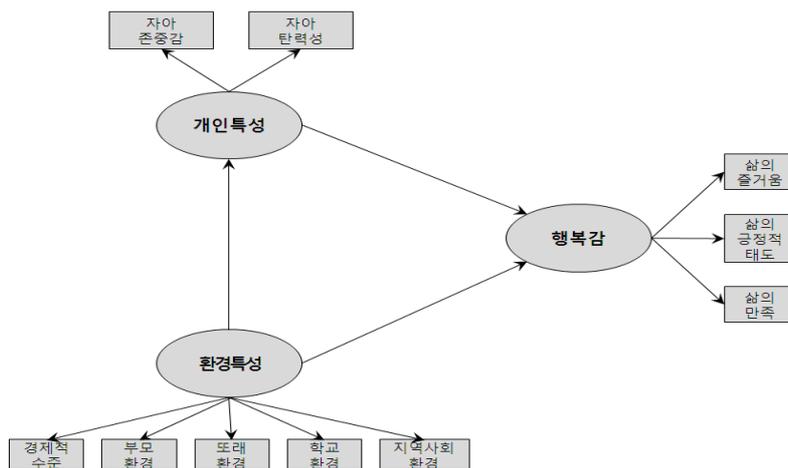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 구조적 관계의 이론적 연구모형

2.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I 중학교 1~2학년 패널 1~2차년도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통합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매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그리고 행복에 대한 변인은 중학교 1학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의 가정 경제적 수준, 부모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그리고 지역사회환경 변인은 중학교 2학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2차년도 추적조사는 2011년 9월 중순~11월 말까지 실시하였다. 중학교 2학년 패널의 2차년도 추적조사의 조사대상은 1차년도(2010년) 확정표본인 2,351명이었으며, 이중 조사 성공 사례 수는 2,280명으로써 97%의 성공률을 보였다. 지역별 성공 사례 수는 서울 223명, 부산 129명, 대구 153명, 인천 153명, 광주 91명, 대전 100명, 울산 109명, 경기 331명, 강원 111명, 충북 126명, 충남 91명, 전북 113명, 전남 115명, 경북 158명, 경남 143명, 제주 134명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 활용된 사례 수는 변인별 응답에 대한 결측치를 모두 제거¹⁾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 최종적으로 활용된 사례 수는 2,143명이었고, 이들의 나이 평균은 14.89세(SD=.34)이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1,075명(50.2%), 여학생이 1,068명(49.8%)이었다.

3. 연구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청소년 행복 측정도구, 개인특성에 있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검사도구, 환경특성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가정 경제적 수준, 부모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그리고 지역사회환경과 관련된 검사도구가 활용되었다.

청소년 행복 검사도구는 김신영 외(2006)의 연구에서 개발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행복 검사도구는 자신의 삶의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써 ‘나는

1)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의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례 수에서 결측치가 없어야 가능하게 된다(배병렬, 2009). 따라서 이 연구에 활용된 변인에 있어 결측치가 발생한 사례를 모두 제거한 후 활용하였다.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4~매우 그렇지 않다=1)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행복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검사도구가 활용되었다. 자아존중감 검사도구는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은 할 수 있다’ 등과 같이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은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4~매우 그렇지 않다=1)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4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자아탄력성 측정 문항은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권지은, 2003에서 재인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검사도구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아통제의 수준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조절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써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등과 같이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도구는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4~매우 그렇지 않다=1)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4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환경특성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가정 경제적 수준, 부모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그리고 지역사회환경 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검사도구가 활용되었다.

청소년의 가정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의 인구사회통계 변인을 묻는 문항 예컨대, 성별, 나이, 학년, 주거지역 등을 포함하여 가정의 연평균 소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환경은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묻는 문항으로써 허묘연(2000)이 제작한 43문항 중 10문항을 활용하였다. 부모환경에 대한 검사도구는 부모의 감독 3문항, 부모의 애정 3문항, 부모의 합리적 설명 4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

을 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도구는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1)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환경 즉,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5로 나타났다.

또래환경은 Armsden와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 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 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황미경, 2010에서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또래환경에 대한 검사도구는 또래에 대한 태도나 또래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써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도구는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4~매우 그렇지 않다=1)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또래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은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척도와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교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의 문항(정화실, 1991에서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환경은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환경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써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도구는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4~매우 그렇지 않다=1)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환경은 ADD Health²⁾에서 실시한 문항을 빈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

2) ADD Health는 미국국립보건원에서 1994년 미국의회의 승인을 받고 23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청소년에 대해서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인 종단연구중의 하나이다(ADD Health Homepage).

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p.57). 지역사회환경은 청소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및 공동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써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도구는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4-매우 그렇지 않다=1)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환경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지역사회환경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77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행복을 비롯하여 개인특성 변인(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환경특성 변인(가정경제적 소득, 부모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등의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수별로 Cronbach α 계수를 도출하고 변인의 신뢰성을 점검하였다. 둘째,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분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Belsley, Kuh & Welsch, 1980). 셋째, 측정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해 이론적 연구가설에 대한 인과관계가 유의미한지를 파악하였다. 넷째, 이론적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제시되어진 이론적 연구가설이 적합할 지라도 전체적인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모형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론적 연구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의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 검증과 Hu와 Bentler(1998)가 제시한 CFI, TLI, SRMR, RMSEA 값을 확인하였다. 지수들의 수용기준은 카이제곱은 $p > .05$ 로써 유의미하지 않아야 하며, CFI와 TLI는 0.9이상, SRMR과 RMSEA는 0.05~0.08일 때 좋은 모형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경로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효과분해를 통한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각 효과분해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해서 부트스트랩 분석(bootstrapping analysis)³⁾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8.0과 AMOS 18.0이 활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행복, 개인특성, 환경특성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청소년의 행복, 개인특성, 환경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가 우선적으로 분석되었다. 표 1에는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가 제시되었다.

표 1

청소년의 행복, 개인특성, 환경특성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2,143)

주요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행복	삶의 즐거움	3.03	.80
	삶의 긍정적 태도	2.48	.92
	삶의 만족	2.96	.84
개인특성	자이존중감	2.79	.50
	자아탄력성	2.90	.44
환경특성	가정 경제적 수준	4,383	2810.64
	부모환경	3.00	.52
	또래환경	2.97	.57
	학교환경	2.81	.38
	지역사회환경	3.03	.50

표 1에 의하면, 청소년 행복에서 삶의 즐거움(M=3.02, SD=0.80)이 제일 높고, 삶의 긍정적(M=2.48, SD=0.92) 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행복이 4점 척도임을

3)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모수추정치의 표본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자료의 임의표본(random sample)을 모집단의 대체(substitute)로 취급한다. 이러한 부트스트래핑은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된다(배병렬, 2009; Arbuckle, 2007).

고려할 때 청소년 행복 점수가 3점(행복하다) 이하라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특성 변인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79(SD=0.56)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2.90(SD=0.44)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변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청소년 심리적 특성이 3점 이하인 것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청소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환경특성 변인 중 가정 경제적 수준에 있어 연소득 수준은 평균 4,383만원(SD=0.55)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환경 평균은 3.00(SD=0.52), 또래환경 평균은 2.97 (SD=.57), 학교환경 평균은 2.81(SD=.38), 그리고 지역사회환경 평균은 3.03(SD=.50)으로 나타났다. 환경특성에 있어서는 부모, 또래,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환경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청소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각 변인들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변인들의 간의 상관관계가 우선적으로 분석되었다.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N=2,143)

	1	2	3	4	5	6	7	8	9	10
1. 삶의 즐거움	1									
2. 삶의 긍정적 태도	.491**	1								
3. 삶의 만족	.727**	.576**	1							
4. 자아존중감	.587**	.461**	.604**	1						
5. 자아탄력성	.402**	.297**	.397**	.467**	1					
6. 가정 경제적 수준	.048*	.073**	.068**	.077**	.083**	1				
7. 부모환경	.385**	.268**	.414**	.374**	.328**	.087**	1			
8. 또래환경	.338**	.211**	.327**	.368**	.481**	.073**	.355**	1		
9. 학교환경	.210**	.148**	.207**	.242**	.346**	.103**	.267**	.263**	1	
10. 지역사회환경	.243**	.165**	.245**	.253**	.278**	.042	.313**	.212**	.180**	1

* $p < .05$, ** $p < .01$

상관관계 분석 결과, 행복, 개인특성, 그리고 환경특성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가정 경제적 수준과 지역사회환경과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이 정적 상관관계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 개인특성, 그리고 환경특성과의 상관관계의 범위가 $r = 0.042 \sim 0.727$ 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 $r < .08$ 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Grewal, Cote & Baumgartner, 2004)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적용된 변인들은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소년 행복, 개인특성, 환경특성 변인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 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측정모형 분석을 살펴보면, 측정모형 분석은 주요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전 연구 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 적용된 주요변인 즉, 청소년 행복, 개인특성, 환경특성 변인에 대한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

측정 모형 분석 결과

(N=2,143)

주요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청소년 행복	삶의 즐거움	1.00	0.82**
	삶의 긍정적 태도	0.88	0.63**
	삶의 만족	1.12	0.88**
개인특성	자이존중감	1.00	0.79**
	자이탄력성	0.66	0.59**
환경특성	가정 경제적 수준	1.00	0.13**
	부모환경	1.74	0.65**
	또래환경	0.75	0.35**
	학교환경	0.86	0.30**
	지역사회환경	1.31	0.44**

** $p < .01$

표 3에 제시된 측정모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요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과 주요변인 간의 경로로서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청소년 행복 변인들의 추정치는 0.63~0.88로 나타났으며, 개인특성 변인들의 추정치는 0.59~0.79로 나타났고, 환경특성 변인들의 추정치는 0.13~0.65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분석에 있어 행복과 개인특성 변인들의 측정수치는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환경특성 변인에 있어 가정 경제적 수준은 0.13으로 나타나 측정변인으로써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정 경제적 소득 변인 하나만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인들과 통합적으로 측정되고,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 특성에서 가정 경제적 수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청소년 행복, 개인특성, 환경특성 변인의 구조관계모형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와 측정된 자료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모형이 현실에 잘 맞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Bollen, 1989). 따라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주요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N=2,143)

가설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결과
H1	개인특성 → 청소년 행복	1.52	0.92**	채택
H2	환경특성 → 청소년 행복	-.25	-0.08	기각
H3	환경특성 → 개인특성	1.60	0.79**	채택

** $p < .01$

표 4에 의하면, 개인특성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설명력이 $R^2=0.92$ 로써 $p < .01$ 유의미한 수준에서 92%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특성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설명력 $R^2=0.08$ 로 나타나고, $p<.05$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특성이 개인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R^2=0.79$ 로써 $p<.01$ 유의미한 수준에서 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H1과 H3은 채택되었지만, H2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행복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92%)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환경특성 변인은 청소년의 행복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개인특성 변인에 보다 더 영향(79%)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변인들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 과 모형을 설명하는 적합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모형의 적합지수는 Hu와 Bentler(1998)가 제시한 CFI, TLI, SRMR, RMSEA 지수가 활용되었다.

표 5

주요변인들 간 구조모형의 적합도

(N=2,143)

적합지수	χ^2 (CMIN)	CFI	TLI	SRMR	RMSEA
결과치	390.34	0.94	0.91	0.04	0.07

표 5에 의하면, χ^2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나($\chi^2=390.34$, $p<.01$)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χ^2 값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는 실제로 제안모델이 자료를 잘 적합 시키는 좋은 모델일 가능성도 있으며 모델 검증의 조건들이 위배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χ^2 값에만 전적으로 적합도를 판단하기 보다는 다른 여러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배병렬, 2005, 2007).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FI=0.94(0.9 이상), TLI=0.91(0.9 이상), SRMR=0.04(0.8 이하), RMSEA=0.07(0.8 이하)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주요변인의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효과분석

주요 변인들의 면밀한 영향의 인과관계 그리고 인과관계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변인들 간의 효과를 분해(effect decomposition) 분석을 하였다. 효과분해는 주요 변인들 간 영향력에 대한 총효과(total effect),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 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정교하게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트스트랩 분석(bootstrapping analysis)을 통하여 분해된 효과의 유의성 검증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구조모형 효과분석 결과(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N=2,143)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개인특성 → 청소년 행복	1.52	0.92**	-	-	1.53	0.92**
환경특성 → 청소년 행복	-.25	-0.08	2.43	0.73**	2.18	0.65**
환경특성 → 개인특성	1.60	0.79**	-	-	1.60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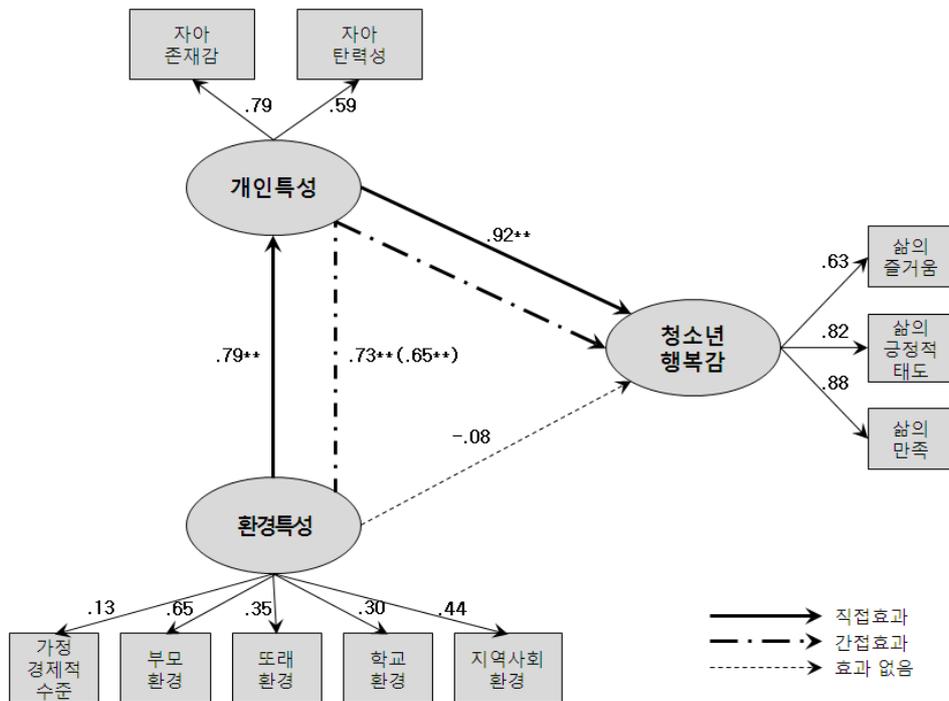
** $p < .01$ (유의도 추정은 부트스트랩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추정함)

표 6에 의하면,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총효과에 있어 개인특성의 설명력 $R^2=0.92$, 환경특성의 설명력 $R^2=0.65$ 로 나타났고, 환경특성이 개인특성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R^2=0.79$ 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효과분해를 해본 결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특성 변인만이 확인되었으며, 환경특성은 개인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환경특성 변인은 청소년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효과, 즉 환경특성→개인특성→청소년 행복으로 이어지는 설명력 $R^2=0.73$ 으로써,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H4(청소년의 환경특성은 청소년 행복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보면, 청소년의 개인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특성은 청소년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특성보다 개인특성이 청소년 행복에 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인특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환경특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청소년의 개인특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구조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값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 $p < .01$, ()안의 값은 환경특성 변인의 총효과를 의미

그림 2. 주요변인들의 최종 구조모형 분석 결과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 변인과 환경특성 변인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청소년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특성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복에 대한 설명력이 92%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행복에 있어 환경특성 변인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이 73%로 간접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인들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지수 CFI, TLI가 모두 .90이상이고 SRMR과 RMSEA도 .08이하로 나타나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을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을 대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행복에 주요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특성보다는 개인특성 변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특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송정화, 2011; 전미경, 장재숙, 2009; 허승연, 2009; Lyubomirsky et al., 2005; Seligman, 2002, 2006; 이기범, 2009에서 재인용)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행복은 결국 청소년의 자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외부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높을수록 행복을 보다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은 비록 환경특성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더라도, 개인특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환경특성 즉, 부모, 또래 지역사회환경 관련 변인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권세원 외(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환경특성이 설명력이 적더라도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라고 밝힌 기존의 연구들(고혜영, 2012; 허승연, 2009)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환경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으나 환경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가 65%에 달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행복에 미치는 환경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 특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심성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청소년 교육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업중심 교육으로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물론 다양한 심성수련회,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며 자신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만족한 삶을 살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다양한 환경에도 유연한 대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특성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강화시켜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략의 제공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전략, 부모와 쉽게 대화하는 전략, 선생님들에 보다 편하게 다가가는 전략 등 다양한 환경개선 프로그램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wee센터, 청소년상담원 등에서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상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또래 갈등 발생 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이를테면 또래조정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행복’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고, 체험활동 등을 하여 왔다. 행복은 마치 어떠한 조건 예컨대 ‘성적이 높아지면 행복하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등과 같이 어떤 조건들을 갖게 되면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하여 왔다(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2011). 하지만 좋은 조건이 청소년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은 행복해지는 연습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자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행복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는 최고의 만족상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특성을 강화시키고 청소년의 환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고영남 (2008).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 교육연구**, 15(2), 111-131.
- 고혜영 (2012).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인숙, 김선영 (2012). 한국의 웰빙 지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 웰빙 지표의 영역과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3(1), 183-203.
- 곽금주 (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16.
- 곽윤영 (2009).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세원, 이해현, 송인한 (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모델 (Adolescent Resilience Model)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5, 40-74.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외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애경 (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운태 (2009).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75-90.
- 김지영, 이형실 (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과교육학회지**, 22(1), 21-32.
- 김희중 (2007). **긍정심리와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종수 (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 동아닷컴 (2013.9.11). UN,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 발표...복지국가 '덴마크' 1위. <http://photo.donga.com/view.php?idno=201309110010&category=0003>에서 2013년 9월 12일 인출.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2), 121-154.
- 배병렬 (2005). LISREL 구조방정식모델(이해와 활용). 서울: 청람.
- 배병렬 (2007).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청람.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제2판). 서울: 청람.
- 서경현 (2012).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주관적 웰빙: 일반 성인과의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2), 137-158.
-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2011). 행복교과서. 서울: 월드김영사.
- 세계일보 (2012.5.4). 어린이 행복지수...한국 4년째 꼴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1/05/04/20110504000237.html>에서 2013년 9월 10일 인출.
- 송정화 (2011). 다층 모형을 적용한 학생 행복의 설명요인 탐색.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윤종대, 정철균, 윤필규, 노미라 (2009).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125-134.
- 이기범 (2009). 한국의 교육문화와 아동·청소년의 행복. **한국청소년연구**, 20(1), 365-392.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숙영 (2012).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117-145.
- 임양미 (2013).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2), 147-167.

- 전미경, 장재숙 (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정화실 (1991).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진만, 강정환, 이병규 (2012).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논집**, 43(1), 47-71.
- 최인숙 (2012). 중학생의 부모, 또래 및 교사 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차 검증. **교육과학연구**, 43(3), 105-129.
- 최혜영, 신혜영, 최미숙, 조성연 (2009). 한국 아동의 행복감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11.
- 하정화, 김정란, 이혜주 (2010). **부산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연구 I**.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하정화, 김정란, 이혜주 (2011). **부산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연구 II**.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경미, 류승아 (2012).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타 연령 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5), 217-235.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dd Health Homepage. (2013, September 11). Retrieved September 11, 2013, from <http://www.cpc.unc.edu/projects/addhealth>.

- Arbuckle, J. (2007). *Amos 18 user's guide*. IL: SPSS Inc.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elsley, D. A., Kuh, E., & Welsch, R. E. (1980). *Regression diagnos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 with laten variables*. New York: Wiley.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124.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 Fujita, F. (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26-935.
- Grewal, R., Cote, J. A., & Baumgartner, H. (2004). Multicollinearity and measurement error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mplications for theory testing. *Marketing Science*, *23*(4), 519-529.
-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 424-453.
- Lyubomirskym,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13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L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happiness, personal traits, and environmental traits of adolesc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ung, Eunmo* · Kim, Gyu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personal traits, and environments traits of 2,143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as take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2011)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personal traits of adolescents had a direct impact on their happiness. Second, environments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but affected happiness through personal traits in a significant manner. This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family, peer, school, and community environments for adolescents' positive self formation and resilience improvement in order to enhance the happiness of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s, happiness, personal traits, environmental traits

투고일 : 2013. 9. 9, 심사일 : 2013. 11. 4, 심사완료일 : 2013. 11. 11

* Associate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Researche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gyunhee1125@nypi.re.kr